

1695년 太宗 獻陵 神道碑의 再建 연구

김규훈(金奎勳)

I. 머리말

II. 獻陵 神道碑의 建立과 再建

1. 현릉 신도비의 건립과 훼손
2. 현릉 신도비의 재건까지

III. 『현릉비석의궤』를 통해 본 재건 과정

1. 재건의 始末
2. 石材의 產地
3. 제작에 참여한 匠人들

IV. 현릉신도비의 양식적 특징

1. 螭首
2. 龜趺

V. 맺음말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 연구원

주요 논저:

『청룡사의 기타 문화재』, 『조선의 원당2 - 안성 청룡사』(국립중앙박물관, 2017) 등

서울 대모산 남쪽에 자리잡은 현릉은 조선 3대 국왕 太宗(재위 1400~1418)과 그의 비 元敬王后 閔氏(1365~1420)의 雙陵으로 조성되었다. 현릉은 건원릉과 함께 유일하게 신도비각을 갖추고 있으며, 비각 안에는 15세기 세워졌던 舊碑와 17세기에 재건된 新碑가 나란히 서있다. 무엇보다도 『獻陵碑石重建廳儀軌』(이하 『현릉비석의궤』)가 전하여 당시 상황 뿐 아니라 조선시대 비석이 어떤 과정으로 제작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현릉 신도비의 중건이 중요한 까닭은 세조 이후 금지되었던 陵碑를 세운 것이다. 쉽게 결정될 문제는 아니었으나, 결국 훼손된 왕릉을 복구한다는 측면에서 일을 진행 시킬 수 있었다. 그 결과 조선 후기 들어 국가에서 직접 세운 최초의 사례가 되었다.

『현릉비석의궤』를 통해 재건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석재의 산지를 정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여기서는 강화, 충주, 강음 세 곳이 언급되었다. 강화의 돌은 무채색에 가까운 화강암으로서, 견고하고 단단해 왕릉과 사대부의 묘소에서 석물로 쓰이던 것이었다. 그러나 舊碑의 예를 좇아 무른 계열[軟石]의 돌을 사용하고자 하였고, 충주와 강음 두 산지 중 최종적으로 강음이 선택되었다. 이 같은 결정은 더 좋은 것을 선택하여 세우고자 한 데에서 비롯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건에 동원된 장인들은 모두 이전부터 國役에 참여한 이들이었다. 다양한 방면에서 참여한 장인들 가운데 石手, 冶匠, 刻手 등이 비석과 직접 관련된 일을 맡았다. 기록 중 석수 중 일부는 龍頭匠으로 분류되었는데, 이는 螭首를 제작한 석수가 따로 있었음을 알려준다. 글씨를 새긴 각수들은 하루에 10여자도 새기기 어려웠다. 또 어두운 돌 색으로 인하여 밀가루를 뿌려 글씨를 확인하며 작업하였다. 이들 외에도 비각의 중건과 관련된 木手, 蓋匠과, 비문을 印出하여 진상용 족자를 만드는 일과 관련되어 簇子匠, 豆錫匠도 참여하였다. 이들 외에도 비석을 나르는 데에는 수천의 인원이 동원되었다. 이처럼 현릉 신도비의 재건에는 수많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였다.

약 200년의 시차를 두고 세워진 두 비석에서는 조선 초기와 후기의 비석 양식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舊碑는 중국 비석의 양식으로 세워졌으며, 귀부의 경우에는 고려 탑비와 같은 전통적인 표현이 적용되었다. 新碑에서는 독창적인 양식이 전개되었는데, 이수의 경우 17세기 양식을 기본으로 하면서 당시에 나타나지 않던 舊碑의 표현을 부분적으로 따와 적용하였다. 그 결과 조선 후기 비석들을 통틀어 유일하게 확인되는 篆額과 독창적인 이수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귀부의 경우는 15세기 정립되었던 조선 귀부 양식을 바탕으로, 17세기에 제작되기 시작한 龍頭形으로 조성하였다. 이수와 귀부에 각각 다른 양식을 적용한 것은 당시 사람들의 선택에 따른 것을 알 수 있다.

주제어: 현릉, 신도비, 현릉비석의궤, 재건, 귀부, 이수, 장인

1695년 太宗 獻陵 神道碑의 再建 연구

김규훈(金奎勳)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 연구원

I. 머리말

朝鮮 王陵은 2009년 6월 30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이후 왕릉과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져 종합적인 성과를 담은 보고서를 비롯하여,¹ 미술사 분야에서도 왕릉과 관련된 논문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² 다만 종합적인 분석을 주로 하였기 때문에 개별 작품에 대한 연구는 적은 편이다.³

현릉은 조선 3대 국왕인 太宗(재위 1400~1418)과 元敬王后 閔氏(1365~1420)의 雙陵으로서 現 서울시 개포동 대모산의 남쪽 자락에 조성되었다. 다른 조선 후기 왕릉과는 달리 정자각 옆으로 神道碑閣이 세워져 있고 안에는 두 신도비가 세워져 있다. 비각을 바라봤을 때 좌측의 비석이 1424년(세종 6) 건립한 비석(이하 舊碑)이며 우측은 1695년(숙종 21)에 세워진 비석(이하

1 조선 왕릉에 관한 연구 조사는 국립문화재연구소를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역사의 숲 조선왕릉』(놀와, 2007), p. 284.; 조선왕릉에 정밀 조사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문화재연구실 편 『조선왕릉 종합학술보고서 I-IX』(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09-2015); 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문화재연구실 『조선왕릉 석물조각사』 I-II(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문화재연구실, 2016-2017);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 보존과학센터, 『조선왕릉 석조문화재 :보존상태 조사보고서 I,II,III』(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 2015-2017). 최근에는 동아시아 왕릉과의 비교 등 연구도 진행되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문화재연구실, 『동아시아의 능-조선왕릉과 중국·베트남의 능묘』(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문화재연구실, 2017), p. 612.

2 최근의 연구 성과에 대한 정리는 다음의 논문 참조. 김은선, 「朝鮮時代 王陵 石人像 研究」, 동국대학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2017), pp. 6-14.

3 북한에 위치한 桓祖와 懿惠王后의 定和陵, 太祖妃 神懿王后 齊陵에도 神道碑가 있으나, 현재 확인이 어려워서 제외하였다. 또한 현존하는 조선왕릉의 비석들은 전부 表石으로서 신도비와는 구성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남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신도비의 예는 건원릉과 현릉이 유일하다. 신도비와 표석에 대한 현황은 다음의 보고서를 참조. 국립문화재연구소, 『조선왕릉 석물 조각사』 II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문화재연구실, 2017), pp. 458-459.



도 1. 太宗 獻陵 神道碑, 서울 서초구 내곡동, 보물 제 1804호. (左) 舊碑, 1424년, (右) 新碑, 1695년

新碑)이다(도 1). 이와 같이 왕릉에 두 개의 신도비가 세워져 있는 것은 유일한 예이다.⁴ 舊碑의 龜趺는 훼손되었으나, 碑身과 이수는 양호하여 조선 초 비석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新碑는 1695년 당시 작성한 『獻陵碑石重建廳儀軌』(이하 『헌릉비석의궤』)가 전하고 있어 헌릉 신도비의 재건 과정을 명확하게 알려준다. 또한 내용을 통해 비석의 생산지, 제작에 참여한 장인들까지 기록한 중요한 자료이다.⁵ 본고에서는 당시의 자료를 바탕으로 헌릉 신도비의 재건 과정을 중점적으로 볼 것이다. 그리고 두 비석의 양식을 통하여 조선시대 비석 미술의 흐름에 대해서도 고찰하고자 한다.

4 건원릉 神道碑閣에도 두 비석이 서 있으나, 다른 하나는 신도비가 아닌 1900년(광무 4)에 세워진 追崇碑이므로 신도비 두 개가 한 공간에 있는 사례는 헌릉이 유일하다.

5 『獻陵碑石重建廳儀軌』, 청구기호 <奎 13501>, M/F 83-16-5-B 유일본(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현재 전해지는 의궤는 御覽用은 없고 分上用만 전해진다. 근래 출간된 영인 및 해석본은 없으며 원문 자료는 규장각 홈페이지(<http://kyujanggak.snu.ac.kr/home/index.do?idx=06&siteCd=KYU&topMenuId=206&targetId=379>)에서 참고하였다. 이하 본 의궤에서 발췌한 부분은 별도 표기 없이 [(OO)秩, 날짜]의 형식에 맞추어 작성하였다.

II. 獻陵 神道碑의 建立과 再建

1. 현릉 신도비의 건립과 훼손

조선 왕릉에 신도비를 세운 예는 1392년 桓祖 定陵 이후 1452년 世宗 英陵까지 조선 초기에 집중되어 있다. 현릉의 경우 아들 세종의 극진한 관심 속에 조성되었으며,⁶ 신도비 또한 健元陵의 예를 따라 조성하였다.⁷ 현릉 신도비의 碑文은 大提學 卞季良(1369~1430)이 짓고, 글씨는 禮曹參議 成概(?~1440), 篆額은 領敦寧府事 權弘(1467~1516)이 썼다.⁸ 비석의 제작을 감독하였던 인물은 李蕝(1376~1451)인데, 그는 火砲, 鍾磬, 簡儀, 鑄字(庚子字) 등을 제작할 때 감독하고 관장하였다.⁹ 따라서 현릉 신도비는 당대 최고의 문인들과 기술자들의 결과물이었으며, 이는 세종의 극진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왕릉 비석과 관련된 사업은 1456년(세조 2)이후 중단되었다.¹⁰ 그 이유는 국왕의 모든 치적은 실록에 기록되었으니 일을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후 1469년(예종 1) 世宗 英陵을 여주로 옮기는 과정에서도 비석은 옮겨 세우지 않았고,¹¹ 세조 이후 조성된 왕릉에는 비석을 세운 예가 없다는 점에서,¹² 세조의 뜻은 계속 이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1592년 발발한 임진왜란은 조선 국토의 대부분이 피해를 본 유례없던 사건이었다. 왕릉 또한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선·정릉의 경우 파해쳐지는 번고를 당하였다. 현릉의 경우도 지리상 서울로 통하는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되었다. 당시에는 적진과 가까이 있어 피해 상황에 대한 확인조차 어려웠다고 하며,¹³ 이후 기록에 의하면 비석이 화재를 입었던 사실을 알 수

6 세종은 현릉의 산릉조성 당시 둘째 아들 효령대군을 보내어 일을 감독하게 하였고, 『世宗實錄』권9, 世宗 2년 9월 21일 丙戌, 일을 마친 뒤 ‘山陵制度’를 작성하였다. 『世宗實錄』권17, 世宗 4년 6월 6일 辛卯

7 세종은 당시에도 비석을 제작하던 곳에 직접 거동하여 글씨 새기는 것을 보았다는 점에서 그의 관심을 알 수 있다. 『世宗實錄』권22, 世宗 5년 10월 25일 壬申.

8 『世宗實錄』권25, 世宗 6년 7월 25일 戊戌, “...賜藝文館大提學卞季良, 禮曹參議成概鞍馬, 領敦寧致仕權弘馬, 季良撰獻陵碑文 概書弘篆額...”

9 이천은 예안 사람으로 무과에 급제한 무관이었다. 그는 平安道 兵馬都節制使를 지낼 때 화포를 제작하여 여진족을 몰아낸 공이 있다. 또한 손재주가 뛰어나 현릉 신도비 뿐 아니라, 英陵의 산릉도 감독하였다. 그의 추記는 『文宗實錄』권10, 文宗 1년 11월 8일 壬寅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 세조 대 이후 비석의 건립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 김규훈, 「朝鮮時代 神道碑의 龜趺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5), pp. 22~26.

11 영릉 석물의 전후관계는 다음을 참조. 김이순, 「세종대왕 ‘구 영릉(舊 英陵)’ 석물 연구」, 『정신문화연구』 32(2009), pp. 155~190.

12 왕과 왕비의 능에는 비석을 세우지 않았으나, 德興大院君이나 仁嬪金氏 順康園 등 왕실의 친인척들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비석이 세워졌다.

13 李育翊, 「宣祖朝故事本末-二陵之變」, 『燃藜室記述』 권 16(한국고전번역원db, http://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dataId=ITKC_BT_1300A_0170_010_0030)

있다.¹⁴ 이후 발발한 병자호란(1636) 당시에도 현릉은 또다시 전장이 되었다. 陵域에서 충청도의 원병과 火箭이 있었고,¹⁵ 이듬해에는 後金의 군사들이 현릉을 불사르기도 하였다.¹⁶ 연달아 발생한 兵亂으로 인하여 현릉 비석의 귀부는 파손되었고, 碑閣 또한 소실되어 현릉 신도비는 비바람에 노출된 채 있게 되었다.¹⁷

따라서 조선 후기에는 왕릉 복구사업이 하나의 중요과제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왕릉에 비석을 세우는 인식이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즉 기존에 세워졌던 왕릉석물을 '복구'의 측면에서 새롭게 비석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이다. 그 변화된 인식의 결과는 1611년(광해군 3) 定·和陵 신도비를 세우는 것에서 짐작해볼 수 있다.¹⁸ 이후 즉위한 인조는 보다 적극적으로 훼손된 비석의 복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이 때 본격적으로 현릉의 비석이 언급되었으나, 대신들의 반대로 결국 복구는 무산되었다.¹⁹ 그러나 현릉 신도비 복구와 관련된 단초를 제공하였고, 숙종 대 이르러 결실을 맺게 되었다.

2. 현릉 신도비의 재건까지

인조 초 한 차례 논의되었던 현릉 신도비에 대한 복구는 숙종 대에 다시 논의되었다. 먼저 1682년(숙종 8) 비석이 깨지거나 훼손된 곳을 살펴보게끔 관리를 내려 보냈다.²⁰ 당시 관리였던 呂聖齊의 보고에 의하면 귀부는 목부터 허리까지 파손되었고, 螭首의 일부도 파손되어 있었다.²¹ 숙종은 비석을 새로 세우고자 하였으나, 앞서 인조 대처럼 대신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²² 그래도 훼손된

14 『顯宗實錄』권 8, 顯宗 5년 2월 23일 丙辰, “鼎重曰, 臣聞獻陵, 有碑石, 壬辰之亂, 倭人縱火焚之, 而碑不燒破, 故倭人以爲神異. 其碑字, 尚不磨滅云…”

15 『仁祖實錄』권33, 仁祖 14년 12월 21일 辛卯.

16 李德懋, 『丙丁表』仁祖 14년 1월 14日, 『靑莊館全書』권 63. (한국고전번역원db, http://db.itkc.or.kr/imgviewer/item?itemId=BT#imgviewer/imgnode?grpId=&itemId=BT&dataId=ITKC_BT_0577A_0630_030_0020)

17 이 때 石人을 비롯한 다른 석물들은 큰 피해가 없던 것으로 보아 전투는 주로 아래에서 벌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도비의 경우 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 피해가 컸을 것이다.

18 정·화릉은 각각 桓祖와 桓祖妃 懿惠王后의 능으로써, 같은 능역에 위 아래로 조성되었다. 신도비는 1393년(태조 2) 세워졌으며 비문의 撰者는 權近, 글씨는 成石璘, 전액은 鄭矩가 썼다. 임진왜란 때 비석이 완전히 파괴되었다가, 1611년(광해군 4) 다시 세워졌다. 다만 정화릉의 경우 함경도관찰사 韓浚謙이 개인적으로 비석재료를 마련하여 중앙의 재가를 받은 특수한 사례이며, 국왕이 직접 논의하며 진행한 것은 인조 대부터 확인된다.

19 이때 인조는 현재 健元陵의 귀부와 같이 목을 움츠리고 있는 형상으로 복원하고자 하였다. 이는 建元陵을 비롯한 조선 초 귀부 양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承政院日記』, 仁祖 3년 10월 15日.

20 『承政院日記』, 肅宗 8年, 3月 20日.

21 『承政院日記』, 肅宗 8年, 4月 3日.

22 『承政院日記』, 上同, “…上曰, 埋置, 既未安, 改修, 亦不易, 填灰束鐵, 雖非久計, 姑爲維持之道, 似或無妨也.”



도 2. 보강된 舊碑의 蟠首²³



도 3. 舊碑 龜趺의 파손된 부분

부분을 그대로 둘 수 없어 귀부의 갈라진 부분은 油灰로 메꾸고, 이수는 철사로 들렀다(도 2, 3)²⁴.

그 후 1691년(숙종 17) 건원릉과 현릉의 비각을 보수하였다는 기록 외에는 비석과 관련된 직접적인 사건은 없다.²⁵ 그러나 1694년(숙종 20) 2월 25일 현릉에 展謁을 한 후, 비석을 세우는 문제에 대하여 稟旨하여 거행하라는 비망기가 내려진다.²⁶ 동년 3월 4일, 대신들이 입시한 자리에서 비석의 중건에 대하여 논의하였는데, 이번에는 정화릉에 신도비를 세운 예를 들어 비석을 새롭게 세우는 것도 무방하다는 뜻을 올렸다. 그 결과 현릉에는 새롭게 신도비가 세워지게 되었으며, 오늘날같이 舊碑와 新碑가 한 자리에 남아있게 되었다.

조선 후기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복구’의 목적으로 왕릉에 비석을 세웠다. 이전에도 몇 차례 논의가 있었으나 대신들의 반대로 무마되었던 점도 확인하였다. 즉 국왕의 일방적인 지시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따라서 1694년 재건 때에도 대신들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만 했다.

당시 대신들의 명단은 『현릉비석의궤』〈座目〉에서 확인된다. 그러나 다른 의궤와는 달리 책임자들의 이름 밑에 “罷職”과 “移職”이 쓰여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현릉 신도비를 세우는 데에 동의한 이들이 대부분 南人系 인물들이었고, 이들은 4월 1일 甲戌換局으로 인하여 모두 숙청되었기 때문이다.²⁷ 물론 정국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감독관들이 자주 교체되어 일은 당초

23 국립중앙박물관, 『유리원판목록집』I(서울:국립중앙박물관, 1997), p. 10; 원판번호 90065, 〈朝蘇太宗敵陸陣上部〉

24 최근 비파괴검사를 통한 결과 귀부와 비신에서 석고가 검출되었다. 이때 보수한 흔적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명성 외, 「비파괴 기법을 이용한 태종 현릉 신도비의 표면 훼손도 진단」, 『文化財』46(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p. 94.

25 『肅宗實錄』권 23, 肅宗 17年 7月 24日. 완공 후 監役官 등에게 상을 내린 비망기는 『承政院日記』 肅宗 17年 9月 5日 참조.

26 『承政院日記』 肅宗 20年 2月 25日.

27 1682년도에 완곡히 반대하였던 이들이 대부분 서인계 인사들이었다는 점에서 미루어 보았을 때 서인과 남인들 사이에는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당시 참여했던 인물들에 대한 정리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 김규훈, 앞의 논문(2015), pp. 142-143.

예상했던 것보다 늦게 완공 되었으나, 현릉 신도비의 건립은 마침내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리고 이는 세조 이후 처음으로 국가에서 주도하여 세워진 왕릉비석이었다.

III. 『현릉비석의궤』를 통해 본 재건 과정

1. 재건의 始末

『현릉비석의궤』에는 1694년 3월부터 1695년 5월까지 일의 전반이 적혀있다. 비록 권수가 많지는 않으나 다른 의궤와 같은 구성으로 세분화되어있어, 비석과 관련된 자료 중 가장 풍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²⁸ 다만 분량 상 의궤 내용 중 진행과정과 중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일의 진행과정을 기록된 〈啓事秩〉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현릉비석의궤』 중 〈啓事秩〉 부분 정리

날짜	내용
1694년 3월 4일	현릉 신도비 수립 관련 회의 및 결정. 담당 관청의 이름을 重建廳으로 정함.
3월 8일	현릉 舊碑를 상세히 실측하기 위하여 監役官을 내려보냄. 重建廳의 事目 작성함
3월 18일	강음의 石片을 살펴봄
4월 3일	충주의 石片을 살펴봄
5월 13일	강음의 돌을 비석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함
5월 18일	예조판서 尹趾善의 상소로 役事를 농번기가 지난 뒤 거행하기로 함
8월 20일	강음 浮石所에 감독관과 석수 등이 내려감
9월 14일	강음 浮石所에서 돌 떠내는 일을 마치고, 발송 전 제반사항을 논의함. ²⁹
10월 2일	龜趺에 쓰일 돌을 살펴보기 위하여 감독관과 畫員, 石手 등을 果川으로 보냄.
10월 7일	비석돌이 현릉에 도착하여 石品을 살펴보기 위해 감독관 등이 내려감.

28 『현릉비석의궤』의 구성은 〈座目〉, 〈啓事秩〉, 〈稟目秩〉, 〈移文帙〉, 〈來關秩〉, 〈手本帙〉, 〈實入秩〉, 〈各樣雜物用餘及用後還下秩〉, 〈分定秩〉, 〈匠人秩〉, 〈論賞〉으로 되어 있다. 분량 상 본고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은 다음의 보고서를 참조, 국립문화재연구소, 『조선왕릉-종합학술조사보고서Ⅰ』(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pp. 449-455.

29 당시 떠낸 原石의 크기는 (長)13尺7寸, (廣)4尺5寸, (厚)1尺 2寸이며, 비석을 배로 싣는 曳石軍은 강음 부근의 平山, 白川 등지에서 1,700명이 동원되었다. 비석은 9월 20일 배에 싣었고, 9월 21일 서울로 보내었다.

날짜	내용
10월 20일	귀부에 쓰일 돌을 果川 纒主山(戀主臺)에서 떼내기로 함.
12월 11일	귀부용 돌을 떼내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 과천 땅으로 감독관 등을 내려보냄.
1695년 1월 21일	비석과 귀부의 제작을 위하여 堂上郎廳 등 감독관들이 내려감.
2월 7일	옛 비각을 허물고, 비각에 들어갈 목재 등을 구하는 일에 대해 논의함
3월 7일	귀부 제작 완료
3월 8일	비석의 龍頭(螭首) 한 면을 조각하기 시작함
3월 28일	비석 뒷면의 용두도 조각이 끝남. 비석의 刻字를 시작하여야 하나 비석이 무거워 뒤집기 어려우므로 陰記부터 새기는 것에 대해 논의함
4월 17일	귀부를 비각 안으로 무사히 배치하였음. ³⁰ 비석의 음기를 새기는 일도 끝나 앞면을 새기기로 함.
5월 5일	비석의 刻字가 끝남. 교정을 위해 書寫官 李德成이 내려감.
5월 9일	교정을 마치고, 세우는吉日을 13일로 정함. 篆文書寫官 洪受疇가 전액을 새기고 같은 날 申時에 세우기로 함.
5월 13일	비석을 무사히 세움. 비각 上梁하는吉日을 16일로 정함.
5월 27일	碑文을 御覽用 등으로 印出하는 일을 정함. 비각의 공사가 끝남.

〈표 1〉을 통해 본 제작과정은 事目 작성, 석재의 수급, 운송, 세부조각 및 刻字, 비각건립 순이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일을 감독하는 관청을 ‘重建廳’으로 정한 뒤,³¹ 곧이어 사목을 작성하였는데 필요한 재료와 인력과 급여 등을 담당할 관청 등을 적고 있다.

석재를 구하는 것은 전체 일정 중 시간이 가장 많이 걸렸다. 기록된 산지는 각각 황해도와 과천이었는데, 인력을 동원하여 배 또는 썰매[雪馬]에 싣고 운반하였다. 이 과정에 수천 명의 인원이 동원되었다.³² 또 귀부에 쓰일 원석은 관악산 부근에서 떼어왔는데, 산지가 험하여 2일에 걸쳐

30 귀부를 안치하는데 동원된 인원수는 700명이다. 〈移文帙〉乙亥四月初五日.

31 본래 중건청은 宮室을 수리할 때 쓰였던 관청명이었다. 현릉 비석의 경우도 전례는 없었으나, 일의 성격 상 크게 어긋나지 않아 본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啓事秩〉, 甲戌三月初四日.

32 석재를 운송하는 과정은 다음의 논문을 참조. 김규훈, 앞의 논문(2015), pp. 53-57.

10여리 가량만 내려올 수 있었다. 그 뒤에도 길이 얼어붙어 썰매가 파손되는 어려움이 있었다.³³

운반된 원석들은 현릉 아래에 마련된 임시로 마련된 작업 공간[假家]에서 장인들의 손을 거쳐 비로소 작품으로 거듭났다. 돌을 다듬는 石手와 각종 필요한 쇠붙이를 만드는 冶匠, 假家を 만드는 木手 등이 먼저 일을 진행하였다. 이후에는 碑文을 쓸 書寫官, 글씨를 새기는 刻手와 刻僧 뿐 아니라 蓋匠, 泥匠, 漆匠 등 碑閣 營繕과 관련된 장인들도 참여하였다.³⁴ 그 외에도 螭首의 밑그림을 그리는 畫員도 배치되었다.³⁵

현릉 신도비와 관련된 작업은 글씨 새기는 일이 마무리된 5월에 비로소 끝났다. 그 사이 비각은 한 칸 더 확장되었고, 비석은 교정과 篆額을 새기는 것을 마치고 무사히 세워졌다.³⁶ 이후 비각의 상량과 완공이 순차대로 끝나고, 파헤쳐진 곳의 莎草 덮는 일은 이후 진행하기로 하며 마무리되었다.

사목이 일의 시작이라면, 마지막 단계는 御覽用 족자를 제작하는 일이었다.³⁷ 이를 위해 簇子匠, 豆錫匠 등이 참여하였다. 이 때 진상된 裝潢簇子は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大殿과 世子宮에 올려졌다. 그리고 『현릉비석의궤』는 6월 1일, 진상 시 필요한 인력을 기록함으로써 약 9개월에 걸친 대장정을 마쳤다.

2. 石材의 產地

제작과정에서 가장 많이 시간이 걸린 것이 바로 석재의 수급이었다.³⁸ 『현릉비석의궤』에서도 석재와 관련된 상세한 기록이 전해지고 있어 이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33 〈移文帙〉甲戌十二月十三일부터 同月十七日.

34 〈手本帙〉乙亥正月日.

35 〈實入秩〉“碑石龍頭起畫所用 畫筆五柄…”. 여기서 용두의 起에 필요한 붓의 수량을 말하고 있다. 기화는 일종의 밑그림으로 起草를 말하며, 석물의 형상을 잡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기화와 기화를 담당한 장인들에 대해선 다음의 논문을 참조. 김민규, 『朝鮮 王陵 長明燈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9), pp. 11-14; 김은선, 앞의 논문(2017), pp. 194-208.

36 당시 비석을 운반할 때 430명의 南漢僧軍들이 동원되었다. 백성들은 농번기여서 차출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內闕帙〉乙亥四月 日, “一南漢總攝牒呈內僧軍四百三十名親自領率馳進陵下事據堂上手決內到付.”

37 〈甘結帙〉乙亥四月初十日부터 同年六月初一日.

38 왕릉과 같이 석물이 많이 제작되는 경우 담당기관을 정한 뒤 浮石所(채석장)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국립중앙박물관 외규장각의궤DB, 『端宗莊陵修改都監儀軌』해제 中

석재를 고를 때는 <표 1>과 같이 생산지를 최소 두 곳 이상 비교하였다.³⁹ 이 과정을 통해 더 좋은 재료를 선택할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각 지역 산지별로 특징도 파악되었다. <표 2>는 당시 언급된 기록을 정리한 것으로, 여기에 나온 정보들은 과거부터 축적된 정보의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2. 『헌릉비석의궤』에 기록된 석재 산지

산지명	내용
① 江華	(戶曹判書 吳始復이 말하길) “헌릉의 원래 비석(舊碑)은 무른 돌[軟石]이지만, 비각이 있어 비바람에 깎이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江華의 석돌[艾石, 碑石]은 굳세고 단단하지만 새기는 것이 어렵습니다. 忠州와 江陰의 돌은 모두 무르니, 관원을 보내어 두 곳 돌의 품질을 살펴본 뒤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였다. ⁴⁰
② 江陰 (金川)	“監造官이 강음 浮石所에서 살펴본 후 석편을 가지고 와서 臣 등이 상세히 살펴보니, 품질이 너무 무르지도, 단단하지도 않으니 돌의 품질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들으니 松都 穆淸殿 楸宮에 새로이 세운 비석에 이 돌을 썼다 합니다. 감조관이 돌아올 때, 돌이 다듬어진 것을 보니 堅剛精潔하고 흠도 거의 없었습니다 …(後略)….” ⁴¹
③ 忠州	“비석(舊碑)은 본래 忠州의 白軟石입니다 …(中略)… 품질을 살펴보니 길이가 짧아 요건에 맞지 않고, 강음의 돌을 살펴본 후 石片을 취하여 와서 보니 무늬(石理)가 심히 아름다워 이 돌을 쓰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다만 돌의 색이 純黑이라 본래의 비석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中略)… 상께서 말씀하시길 石理가 좋으면 그 색이 비록 검더라도 사용해도 무방하니 강음 돌을 취하여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⁴²

가장 먼저 언급된 지역은 江華, 곧 강화도였다. 특히 강화의 돌은 두 지역과는 다른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OO石’이 아닌 ‘쑥돌’(艾石, 본문에서는 碑石)이라는 별칭으로 말한 것이다. 이렇게 부른 까닭은 『世宗實錄地理志』에도 언급될 정도로 사용된 역사가 긴 만큼 친숙하였기

39 귀부에 쓰일 돌 역시 果川의 두 곳과 衿川 한 곳, 총 세 장소를 확인하고 과천 영주산으로 결정하였다. <啓事秩> 甲戌十月二十日. “一啓日郎廳監造官以龜臺石浮出處看審定奪事出去今始還歸而果川二處衿川 一處之中果川靈主山下石品道里最佳且便將以此地石浮取之意敢啓傳曰允.”

40 <啓事秩> 甲戌三月初四日.

41 <啓事秩> 甲戌三月十八日.

42 <啓事秩> 甲戌五月十三日.



도 4. 강화의 돌을 사용한 예. (左) 광성부원군 김만기묘표, 1699년, (右) 여양부원군 민유중묘표, 1707년⁴⁵

때문이다.⁴³ 강화의 돌은 왕실의 國葬뿐 아니라 사대부 집안에서도 널리 쓰였던 석재였다. 특히 숙종의 경우 光城府院君 金萬基(1633~1687), 驪陽府院君 閔維重(1630~1687)과 같은 인척들의 묘에 석물로 쓰라고 직접 명하기도 하였다.⁴⁴(도 4)

두 묘소의 비석과 같이 강화의 돌은 전체적으로 청회색을 띠고 있다. 그 이유는 다른 화강암과는 달리 미립질의 흑운모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⁴⁶ 또 雜色이 적고 조직이 치밀하며, 대리암 계열에서 나타나는 문양[石理]이 없어 깔끔하다. 무엇보다 견고한 화강암의 특징 상 노출된 상태로 약 4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훼손된 곳이 상당히 적다. 이러한 장점 때문인지,

43 『世宗實錄』, 『地理志』, 江華, ‘…土産, 靑蘭石, 産摩利山西海濱, 可刻碑, 獻陵神道碑, 用此石….’ 여기서 ‘청란석’이라고 칭하고 있으며, ‘비석에 새기기 좋다’라고 평하면서, ‘헌릉 신도비도 이 돌을 썼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강화도에서 나오는 돌은 화강암이며, 비파괴검사 결과 현릉의 구비석은 ‘중립질 흑운모화강암(귀부)과 결정질 석회암(대리암: 비신, 이수)’임을 확인하였다. [이명성 외, 앞의 논문(2013), pp.102-103] 따라서 지리지에서 ‘강화도의 돌을 썼다’라는 표현은 碑身이 아닌 龜趺일 가능성이 크다. 1744년(영조 20)에 세워진 齊陵 神道碑의 경우도 귀부는 강화도 돌을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뒷받침해준다.

44 『備邊司謄錄』冊41, 肅宗 13년 4월, “江華留守申晟所啓…今此光城府院君墓道石物, 都定於本府, 既已下教之事, 只當奉行….”; 『備邊司謄錄』冊49, 肅宗 21년 1월 23일, “…今正月二十三日晝講入侍時, 驪陽府院君表石, 許令取用於江華事, 榻前下教…”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introduction/intro_bb.html)

45 사진은 다음의 책에서 사용하였다. 경기도박물관, 『경기묘제석조미술』 下(경기: 경기도박물관, 2008), p. 105.

46 이춘오 외 4명, 「국내 석재산지의 지역별 분포유형과 특성」, 『암석학회지』 15권 3호(한국암석학회, 2006), p.157.

강화의 돌은 한 때 ‘國葬에 쓰여 浮取하는 것을 엄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사대부 집안의 碑表는 모두 이 돌을 썼다’고 할 정도로 수요가 많았다.⁴⁷ 이와같이 지속적인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화강암 재질의 돌을 다루는 기술 또한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현릉 신도비를 세울 때 단순히 ‘새기기 어렵다’는 기술적인 이유만으로 후보에서 밀린 것은 맞지 않다. 더 정확히 하면 先例를 좇아 무른 돌, 즉 대리석 계열의 석재를 이용하고자 한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나머지 두 곳, 충주와 강음의 돌은 모두 대리암 계열로 당시에는 ‘무른 돌’[軟石]이라 칭하였다. 이들 중 먼저 충주의 돌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근래 조사결과 강원도와 충청북도는 다른 지역보다 대리암이 많이 생산된 지역이다. 이 곳에서 나오는 대리석은 전체적으로 백색계열이 가장 많고 일부가 담홍색, 암록색을 띠는 것으로 확인하였다.⁴⁸ 이러한 특징은 ③번의 기록에 보이는 ‘흰색 무른 돌[白軟石]’과 일치하며, 舊碑가 충주의 돌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충주지역의 돌이 비석으로 사용된 예는 <永膺大君 神道碑>(1498년 건립)를 들 수 있다. 영응대군의 아들 李源이 忠原縣에서 돌을 구해와 세운 것으로, 역시 백색계열의 무른 돌이다(도 5).⁴⁹ 현릉의 舊碑에도 사용된 것으로 보아 적어도 15세기까지는 충주의 돌이 비석으로 활용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694년 당시에는 규격에 맞는 돌을 생산할 수 없었다고 전한다. 물론 산출량이 적어졌을 수



도 5. 충주의 돌을 사용한 예. (左) 영응대군 신도비, 1498년, (右) 현릉 신도비(舊碑), 1424년

47 『備邊司謄錄』 책 41, 肅宗 13년 4월, “…先王國恤時, 領議政金爲摠護使, 以江都石物, 全爲國葬時所用, 嚴禁浮取之意, 陳達於榻前…”

48 이춘오 외 4명, 위의 논문(2006), pp.158-159.

49 <李瑱神道碑文>, “…三月庚子 彰善大夫清風君源 以墓道無碑 乃不能揚休於來世 輦石忠原斷斷索銘於土洪…”



도 6. 강음의 돌을 사용한 예, (左)목청전비, 1694년⁵⁰, (右) 현릉 신도비(新碑), 1695년

있으나, 당시 더 좋은 석재의 산지였던 강음지역의 돌을 사용하고자 한 결과로 보인다.⁵¹

강음은 현재의 황해도 금천군이며, 개성에서 북서쪽으로 20리가량 떨어져 있다.⁵² 지질학적으로 예성강 하구로부터 개성 일대에 분포하는 임진계에 속하며, 주요 기반암은 셰일, 석회암 등이다.⁵³ 따라서 충주의 대리암과 마찬가지로 무른 돌들이 나왔으며, ‘石理’가 나타나는 공통점도 있다. 다만 충주의 대리암과는 달리, 강음의 돌 색은 검은색인 차이점이 있다.

강음의 석재를 사용한 예는 현릉 신도비와, 穆淸殿碑가 확인된다(도 6).⁵⁴ 강음 석재와 관련된 기록은 앞 시기에는 찾아볼 수 없으며, 1694년 목청정비를 세울 때 본격적으로 알려진

50 사진은 다음의 책에서 인용하였다. 국립문화재연구소, 『개성의 문화유적』(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p. 143.

51 이런 예는 仁祖 長陵에 표석으로 남포의 烏石을 사용하게 할 때, 강화도에서 더 이상 좋은 돌이 생산되지 않았다고 보고한 상황도 있다. 김규훈, 앞의 논문(2015), pp. 45-46.

52 강음은 고려시대에는 松嶽郡의 領縣이었으며, 『世宗實錄地理志』에 의하면 황해도의 조세를 거두던 助邑浦가 남쪽에 있었다. 1652년 금천역과 멀다는 이유로 우봉과 합쳐져 금천군으로 통합되었다. 따라서 당시에도 이미 금천군이지만, 원문에 따라 강음으로 표기하고자 한다.

53 대한지질학회, 『한국의 지질』, (서울: 시그마프레스, 1999), pp. 44-54.

54 穆淸殿은 경기도 개성에 있는 태조의 潛邸로 1418년(태종 18) 태조어진을 모신 影殿으로 수리하였다. 왜란 때 소실되었으며, 1693년(숙종 19) 개경에 들른 숙종이 대신들의 의견을 따라 遺墟에 비석을 세웠다. 1694년 5월에 완공되었다. 비문은 權愈가 짓고, 글씨는 花春君 李瀾, 전액은 權珪가 지었다.

산지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당시 석물에 쓰인 석재는 石脈을 따라 깊숙이 있는 것을 채취하여 사용하였다.⁵⁵ 따라서 강음의 돌은 기록에는 없지만 과거에 석맥을 찾아둔 상태일 수 있고, 이와 같은 점은 충주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표 2〉의 ②의 언급과 같이 강음의 돌은 품질이 좋다고 하였으나, 돌 자체가 무르다는 단점이 있었다. 즉 풍화에 약해 비각을 지어야만 오래 보전이 가능하였다. 일반 사대부 집안에서는 비각을 세우는 것은 부담이 되는 일이었고, 자연스럽게 화강암을 선호하게 된 것일 수 있다. 약한 내구성 때문에 대좌와 같은 받침돌로 쓰이기도 어려웠다. 현릉 신도비의 귀부도 과천 영주산, 곧 현재 관악산 연주대 부근의 화강암 계열의 돌을 사용하였다.⁵⁶

이상과 같이 현릉 신도비는 다양한 석재 산지의 특징이 파악된 상황에서 제작이 진행되었다. 비석의 경우 과거에 세운 예를 따라 무른 돌을 선택하였고, 대좌는 견고한 화강암으로 제작하였다. 강음과 같은 새로운 석재 산지의 돌을 선택한 점도 주목된다. 전례를 따르면서도 상황에 따라 더 좋은 것을 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3. 제작에 참여한 匠人들

제작과정에서 살펴본 것처럼, 國葬과 같이 다양한 분야의 장인들이 참여하였다. 『현릉비석의궤』에서는 다른 장인들 보다 石手, 刻手와 관련되어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이를 조금 더 검토해보고자 한다.

1) 石手

〈工匠秩〉에 적혀있는 석수들은 총 13명이며, 각 석수들은 보조인원(助役)과 밥짓는 이(火丁)가 3명씩 배치되어 총 52명이 石役을 담당하였다. 이들은 산지에서 원석을 떼내고, 다듬어 비석의 형태를 갖추는 일을 하였다. 석수들은 일의 핵심을 맡은 이들로서 일이 진행됨과 동시에 소집하였다. 소집 당시 서울에 거주하는 석수[京石手]와 지방 석수[鄕石手]로 구분하며, 그들의

55 석맥을 찾는 일에 대해서는 1789년(정조 13) 隆陵 遷陵 때 일화가 전해진다. 요약하면 용릉의 석물을 쓸 때 큰 돌은 강화에서 쓸 것을 석수들이 말하였으나, 정조는 운송의 번거로움을 들어 근처의 鶯峯에서 깎 것을 명하였다. 이에 석공들이 석맥을 파헤쳐 겨우 한줄기 맥을 찾았고, 그 맥을 따라 30여길을 파 들어가 卵石을 구할 수 있어 마침내 용릉에 쓰일 鼓石, 羊石, 屏風石, 魂遊石 등 석재를 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弘齋全書』 58, 雜著, 遷園事實 二, 象設第三. (한국고전번역원db, http://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dataId=ITKC_BT_0584A_0580_010_0010). 여기서 1 길은 8尺, 혹은 10尺으로 약 2.4~3.0m에 해당한다.

56 강화가 아닌 과천지역의 돌을 택한 것은 귀부의 경우 비석보다 크고 무거웠기 때문에 비교적 현릉에서 가까운 산지였던 관악산에서 구한 것으로 생각된다.

거주지도 기록해두었다.⁵⁷ 당시 작성된 명단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헌릉비석의궤』 9월 20일 기사에 언급된 석수들 (굵은글씨는 <工匠秩>에 포함된 이들)

거주지역				이름
石手	京石手	東部	(蓮花坊) 蓮池契	金戒直, 金武直, 韓以忠
		北部	(順化坊) 司宰監契	韓文里金
			(安國坊) 安國洞契	朴次彥屎
		西部	大貞陵洞 ⁵⁸	咸以興
			大寺洞 ⁵⁹	柳以先
		南部	(好賢坊) 宜山尉契	李千良
			(貞善坊) 米前下契(米廬下契) ⁶⁰	安云伊
	鄉石手	果川		姜先一, 金貴相, 金斗先, 金江
	鄉石手	廣州		柳太善
	기타	訓練都監		朴吉

위의 표를 참조하였을 때 석수들은 특정 지역에 모여서 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표 3>의 명단과 <工匠秩>의 명단에서 인원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工匠秩>에 빠진 이들은 불참한 것으로 보인다.⁶¹ 다만 불참한 이들도 이후 국역에 참여한 것이 확인되어 특별한 제재는 없었으며, 비교적

57 <移文秩> 甲戌九月二十日.

58 1751년 작성된 『御製守城繪音』에는 “西部 大平館契[養生坊] 西小門內契 聚賢洞契 小貞洞契[以上皇華坊○以上城內]”라고 나와 있고 大貞陵洞은 나와있지 않다.(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http://kostma.korea.ac.kr>) 그러나 이후 “임금과 王太子는 大貞洞의 러시아 공사관(俄國公使館)으로 駐蹕을 移御하였고, 王太后와 王太子妃는 慶運宮에 이어하였다.”(『高宗實錄』권34, 高宗 33년 2월 11일)라는 기록을 통해 언급하고 있어, 대정릉동은 구 러시아 공사관이 있는 현재 중구 貞洞 일대를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다.

59 『御製守城繪音』, “中部 中魚物廬一牌契 二牌契[以上堅平坊] 大寺洞 一牌契 二牌契 三牌契 四牌契 忠勳府內契[以上寬仁坊].” 그러나 1788년 기록을 살펴보면 건평방의 일부가 관인방으로 합쳐진 사실을 알 수 있다. “寬仁坊七契 中魚物廬一牌契二牌契 大寺洞一牌契二牌契三牌契四牌契 忠勳府內契”. 『日省錄』, 「頒下加髡申禁事日」, 1788년 10월 12일.

60 『御製守城繪音』, “中部 貞善坊十二契…下米廬契; 南部 非老廬契 林己孫契 金萬年契 水門洞契 古兵曹契 敦寧府上契下契 把子廬契 下米廬契[以上貞善坊].” 여기서 米前은 米廬과 동일한 발음으로 같은 지역이다.

61 당시 참여하였던 석수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李永立, 朴吉, 甘二建, 崔山, 李加應伊, 朴次彥屎, 安鶴, 金武直, 金戒直 劉富貴, 朴泰善, 李善金, 韓貴商.” 또한 지역이 다를 경우 구분하여 적었던 의궤 양식상, 이들도 서울에 거주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자율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⁶² 그러나 경제적인 면은 조금 달랐다. 이들은 급료를 米布로 받았는데 당시 기록에 의하면 朔에 쌀 9斗, 布 2疋을 받았다.⁶³ 이 액수는 당시 書吏들이 받은 액수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궁핍한 생활을 면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을 것이다.⁶⁴

『현릉비석의궤』에 기록된 석수들은 대부분 산릉 당시 大浮石所에서 일한 이들이었다. 대부석소는 왕릉의 석물을 전반적으로 제작하였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당시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이들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⁶⁵ 당시 참여한 석수 중 주목되는 인물은 朴吉로, 훈련도감 소속의 砲手였었다. 그는 仁敬王后 翼陵(1680)에 처음 이름을 올린 후 明聖王后 崇陵(1683), 仁顯王后 明陵(1701)의 대부석소에 장인으로 활동하였다.⁶⁶ 이후 『大報壇謄錄』(1704)에도 역시 훈련도감 소속으로 참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⁶⁷

朴吉은 다른 석수들과 비교하였을 때 경력이 크게 두드러지진 않았으나, 현릉 신도비 제작 당시 ‘龍頭匠’이라고 구분하여 지칭하였다.⁶⁸ 여기서 용두는 螭首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가 현릉 신도비의 이수를 제작한 인물임을 확인할 수 있다.⁶⁹ 이와같이 구분하여 부른 까닭은 아마도 ‘솜씨가 좋은 석수[善石手]’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를 약 한 달가량 일찍 역사에 참여하게끔 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만 다른 석수들보다 활동이 적었던 까닭은, 본 신분은 훈련도감의 군사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⁷⁰

62 9월에 언급된 이들 중 韓二忠은 1698년 端宗莊陵封陵에서 대부석소 邊手로 활동하였고, 李千良(李天良), 咸以興도 각각 端懿嬪墓(1718), 宣懿王后懿陵山陵(1730)에도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63 〈分定秩〉, “諸色工匠及助役火等式例 匠人則一朔料九斗式 布二疋式…”

64 신해순, 「17세기 전후 동반 소속 하급 경야전 제도의 변화: 서리(書吏)를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40(2010), pp. 105-146.

65 왕릉의 대부석소와 석수에 관해서는 다음의 논문 참조. 김은선, 앞의 논문(2017), pp. 208-231.

66 『仁敬王后翼陵山陵都監儀軌』(下), 「大浮石所」, 〈工匠秩〉, “石手…金武直…朴吉…金戒直…以上京.”; 『明聖王后崇陵山陵都監儀軌』(下), 「大浮石所」, 〈工匠秩〉, “石手…金繼直 李永立 朴吉 方孝元 黃承善 崔禮金 李天良 林守命 裴士郎金 趙明立 朴明哲 崔次堅 以上京居.”; 『仁顯王后明陵山陵都監儀軌』(下), 「大浮石所」, 〈工匠秩〉, “石手…朴吉…李天良…金武直 金戒直 安鶴…咸二興…以上居京.” 이를 통해 박길 또한 현릉 신도비를 세울 때 참여하였던 김무직, 김계직, 안학 등과 마찬가지로 서울에 거주하는 석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67 『大報壇謄錄』, 〈移文秩〉 甲申十月初四日, “訓鍊都監事一都監所屬石手朴吉方孝建崔愛善等起送亦爲有如此….”(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e-kyujanggak.snu.ac.kr/home/main.do?siteCd=KYU>)

68 〈手本帙〉, 八月日, “右手本爲行下事 今此本陵碑石浮取之役萬分緊急善手石手使之捉得然後當爲發行是置訓鍊都監石手龍頭匠朴吉及果川石手姜善一等今月十九日朝前及良星火現身…”

69 이수를 용두로 지칭한 예는 1744년 齊陵 神道碑를 세울 때도 언급된다. 여기서 지붕돌의 형태를 龍頭와 加檐石으로 구분한 것을 알 수 있다. 『神懿王后齊陵神道碑營建廳儀軌』(啓辭秩), 甲子九月十一日, “…健元陵神道碑, 用龍頭之制, 而他各陵亦多用加簷蓋爲近制, 日後亦或勝於龍頭故也. 今則何以爲之耶? 上曰, 以龍頭爲之.”

70 박길은 현릉의 역사 당시에도 石役이 끝나기 전 訓鍊都監에서 복귀하라고 명을 받았으나, 특별히 조치를 취하여 마칠 때까지 일을 진행하게 하였다. 〈移文秩〉, 乙亥四月五日.

2) 刻手

〈工匠秩〉에 의하면 당시 참여한 각수는 총 13명이며,⁷¹ 석수나 야장과 같이 助役과 관련된 기록이 없어 별도의 추가인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비석이 다듬어진 뒤인 3월에 소집되었는데, 주 업무가 글씨를 새기는 ‘刻字’ 작업이었기 때문이다.

각수들이 비석에 글씨를 새기기 전 먼저 진행된 일은 비문을 비석으로 옮기는 것이었다. 현릉의 경우 書寫官 李德成이 내려가 舊碑의 비문을 베끼게 하고, 追記는 따로 작성하였다. 연마된 비석 위에 畫員은 唐朱紅을 사용하여 井間을 쳐두어 밑준비를 하였다.⁷² 준비된 비석 위에 글씨를 옮기는 일은 寫字官들이 맡았다. 이들은 원본 뒤에 밀랍을 칠하고, 비추어진 자획[字畫]을 따라 그렸다. 그 뒤 이를 비석에 부착하여 문지르면 밀랍과 먹이 엉겨져 비석 위에 글씨가 옮겨졌다. 이렇게 글씨를 옮기는것을 北漆이라고 하고, 이 작업이 마쳐진 뒤에 비로소 刻役이 진행되었다.⁷³

각수들이 글씨를 새길 때에는 우선 비석 위에 기름종이[油紙]를 바르고, 종이 아래에 비추어지는 자획대로 새겼다. 그대로 새길 시 자획이 이지러질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 작업이 없는 밤에는 습기로 인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毛氈과 油氈으로 덮어두었다.⁷⁴ 현릉의 경우 글씨를 새기는 데에만 50여 일이 걸렸다. 추산이지만, 비문의 글자 수와 인원 등을 고려했을 때 이들은 하루에 약 6~7자 정도를 새긴 셈이다. 1744년 제릉 신도비를 세울 시 총 10명이 4일간 500여 글자를 새겼는데,⁷⁵ 이와 비교해보아도 작업의 속도는 크게 향상된 것은 아니었다. 그만큼 이들의 업무는 세심하며 끈기가 요구되었다.

『현릉비석의궤』에는 당시 각수들의 활동을 짐작하게 해주는 기사가 있다. 3월 12일 본격적인 刻役이 시작되기 전 車齡男, 柳春立, 金貞顯 등이 당시 안성에 있던 靑華府院君墓의 碑役을 하던 중 올라오게 하였다.⁷⁶ 청화부원군은 沈鏞은 청송심씨의 3대손으로, 왜란으로 훼손된 묘역을 당시

71 李守命, 金貞顯, 李時雄, 尹吉, 金有鐵, 車信元, 韓天仁, 柳春立, 洪實賢(安岳), 李時成, 南仁(原州僧)과 원본의 훼손으로 인하여 두 명은 확인이 어렵지만, 한 명은 3월 21일에 언급된 刻字匠 李惟一일 수 있다.

72 〈移文帙〉 3月 日, “右手本爲行下事, 今此碑石字間印出時 畫員所用 唐朱紅一兩一錢 阿膠一兩五錢 畫筆五柄等物上下進排事…”

73 현릉 신도비의 경우 복칠 작업 때 밀가루[眞末]가 들어간 것을 알 수 있는데, 어두운 돌 색 때문에 밀가루를 글씨 위에 뿌려 자획을 보이게끔 한 것이다. 〈實入秩〉, “…碑文北漆時所用 眞粉一斤 碑文正書北漆所用 竹清紙七卷四張 入蜜次黃蜜一斤四兩…”

74 〈手本帙〉 三月日, “刻手李守命所告內…碑文正書後又以油紙塗付則字畫不使漫滅臨時刻先割油紙這這 露字而仍刻是如爲乎跡畫則刻字而夜則蓋覆而必有毛氈典油氈是良沙可防經夜之濕氣而亦便於朝前之刻役是如云云爲乎.”

75 『神懿王后齊陵神道碑營建廳儀軌』, 〈啓辭秩〉, 甲子十月十六日, “…碑刻則自十二日至今日, 前後所刻, 合五百餘字是白遣…”(국립중앙박물관 외규장각의궤db, <http://www.museum.go.kr/uigwe/home>)

76 〈移文帙〉 乙亥三月十二日, 安城了 “一爲相考事 本陵碑石今月十七日刻字始役爲去乎 刻手車齡男劉春立金貞顯等本郡靑華府院君碑役事下去爲有置 來十六日及良現身陵所事 分付施行向事.”

후손들이 돈을 거두어 봉분을 개축하고 비석을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다.⁷⁷ 언급된 세 명의 각수들은 아마도 비석의 刻字를 진행하고 있었을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석수들과 마찬가지로, 각수들 또한 별도의 國役이 없을 경우 약간의 자율성을 갖고 있었고, 일부 장인들은 소규모의 牌를 꾸렸던 것도 짐작할 수 있다. 청화부원군 비석을 작업하였던 차엇남의 경우 <공장질>에는 언급이 되고 있지 않아, 그는 불참하고 안성에서 일하였을 수 있다. 그러나 1699년 『端宗定順王后復位祔廟都監儀軌』의 장인 명단에 올라온 것으로 보아,⁷⁸ 석수와 마찬가지로 사정이 있을 시 불참하여도 큰 제재를 가하진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IV. 현릉신도비의 양식적 특징

현릉의 두 신도비는 龜趺 대좌와 屋蓋 부분은 螭首로 구성된 전형적인 귀부-이수형 비석이다.⁷⁹ 또한 왕실에서 제작하였던 만큼 다른 비석에 비해 그 수준이 뛰어난 석조 작품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한 장소에 약 200년의 시차를 두고 제작되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양식변화도 알 수 있어 중요하다. 본 장에서는 두 비석이 세워졌던 시기 작품들과 비교하여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1. 螭首

이수는 碑首에 용의 형상을 새긴 것으로, 용이 가진 상징성 때문에 일찍이 唐에서는 5품 이상의 관료만 세우게 규정하였다.⁸⁰ 중국 비석에서 보이는 이수는 용의 머리는 아래로 향한 채 뒷발로 寶珠를 쥐고 있으며, 그 아래로 액자형태의 篆額을 둔 것이다.

77 <靑華府院君墓碣文>, “壬丁兵燹之後子孫失公墓…中外諸族改築封捐財樹石仍屬.”

78 차엇남 외에도 현릉비석의궤에 기록되었던 이시성, 유춘립도 함께 참여하였다. 『端宗定順王后復位祔廟都監儀軌』, 「三房儀軌」, <諸色工匠秩> “…刻手匠 金有哲, 李守命 金廷賢, 閔重秋 車齡男, 李時成, 柳春立, 李世輝, 吳武興, 韓貴天, 尹尙根, 李時俊 李承達, 李次雄 僧太初…”

79 이 형식의 비석은 조선시대 고위관직을 지낸 이들이나 혹은 왕실의 인척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전개되었다. 귀부형 신도비에 대한 전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 김규훈, 앞의 논문(2015), pp. 83-156.

80 『中国古代祭祀礼仪集成』编委会 26册, 「大唐開元禮」, “…五品以上 螭首龜趺 上高不得過九尺, 七品以上 立碣 圭首方趺 上高四尺…”



도 7. 태종 헌릉 신도비의 이수. (左)舊碑, 1424년, (右)新碑, 1695년

본문에서 살펴볼 헌릉의 두 신도비를 중심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두 비석 공통적으로 용, 보주, 구름, 그리고 전액으로 구성된 전형적인 이수다(도 7). 그러나 자세히 보면 舊碑는 용의 머리가 아래로 향해있고, 新碑는 마주보고 있는 형상이다. 또한 舊碑는 용틀임을 한 용들이 전체를 에워싼 것에 비해, 新碑는 가운데 구름이 조각되어 팍 찬 느낌이 부족하다. 이를 통해 조선은 초기에는 중국 양식을 수용하였으나,⁸¹ 후기로 내려오면서 변화된 양식으로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 변화에 대해 동시기 작품들과 비교하여 살펴볼 것이다.

舊碑는 〈太祖 健元陵 神道碑〉(1409년 건립)와 동일한 양식으로 제작되었다(도 8-左). 이는 고려 말 제작되었던 양식을 계승한 것이다. 이후 제작된 비석의 이수에서는 두 용이 마주보는 형상으로 변화였다(도 8-中). 16세기에 이르러 전액 공간이 사라지는 양식 변화가 감지된다. 특히 〈정난중 신도비〉(1525년 건립)와 같이 전액을 마련해 두었지만, 篆書는 비신에 새긴 과도기 양식도 확인된다(도 8-右).⁸² 조선시대에는 이렇게 변화된 양식이 점차 확대되면서, 건원릉과 헌릉과 같이 중국양식을 따른 예는 더 이상 제작되지 않았다.

17세기는 양식적으로 전통의 계승과 변화가 이루어지던 시기였다. 일부에서는 고려 탑비에서 보이는 양식을 따른 경우도 있었다.⁸³ 그러나 숙종 대 제작된 대다수의 이수를 보면 15세기 정립된

81 이러한 이수 양식은 고려 말 塔碑에서부터 확인된다. 그 변화의 원인은 원 간섭기에 중국과의 교류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있다. 정성중, 「고려말 석비의 변화에 대하여-양식과 재료를 중심으로-」, 『문화사학』 11·12·13號(1999), pp. 591-626.

82 전액에는 諡號 정도만 간략하게 적었으나, 이후 진출한 관료들의 신도비에는 관직명과 別號 등까지 적게 되어 적을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비롯되었다. 이 같은 변화는 당시 관직에 있던 이들이 사림 출신의 관료로 변화하면서, 관료보다 문인 학자로서의 면모를 강조하고자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인숙, 「조선 16세기 신도비 비액 전서 연구」, 『민족문화논총』 제 49집(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1), pp. 621-651.

83 이 무렵 원주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는 탑비의 영향을 받은 양식의 귀부 비석이 등장한다. 다음의 논문 참조. 김규훈, 앞의 논문(2015), pp. 123-129. ; 김민규, 「原州 碑頭里 龜趺와 螭首 研究」, 『불교미술사학』 15(2013), pp. 153-173.



도 8. 15~16세기 비석의 이수 양식. (左)태조 건원릉 신도비, 1409년, (中)안맹당 신도비, 1466년, (右)정난중 신도비, 1525년

양식을 계승하여 발전한 것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하단에는 구름을 새기고 전액의 흔적은 소멸되었다. 그 구름 위로 두 마리의 용이 서로 마주 보거나, 혹은 여의주를 쥔 채 위를 향한 형상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변화된 이수 양식은 조선 후기 전반에 걸쳐 제작되었다(도 9). 조선 전기보다 얼굴과 몸체 부분을 입체감 있게 조각하였고, 귀 뒤쪽으로 수염의 일부가 휘날리는 표현을 하여 운동감을 주기도 하였다. 또 용의 얼굴이 앞 시기보다 크게 조각한 점도 특징이다.



도 9. 숙종 대 세워진 비석의 이수 양식. (左)김좌명 신도비, 1679년, (中)이완 신도비, 1688년, (右)헌릉 신도비(新碑), 1695년

新碑의 이수는 舊碑가 아닌, 17세기 양식을 바탕으로 제작하였다. 주 문양인 두 마리의 용은 마주 보고 있으며, 중앙 상단에는 여의주가 놓여있고 이를 발로 잡고 있는 점에서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도 9-右).

세부적인 표현은 동시기 작품과 차이가 있다. 첫째, 16세기 이후 소멸된 전액이 다시 표현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舊碑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를 모방하여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舊碑와 비교하였을 때 新碑의 글씨체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도 10-1), 그 이유는 1695년 당시 <荒山大捷碑>의 전액을 참고하였기 때문이다(도 10-2).⁸⁴ 다만 <황산대첩비>보다는 舊碑에 쓰여진 李陽冰體의 전서를 따랐음을 알 수 있다. 이는 石品을 비교선택한 것과 동일하게, 글씨 또한 동일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舊碑를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84 <移文帙>, 乙亥三月十七日. 雲峯了 “一爲相考事本陵碑石書寫時有憑考之事 本郡大捷碑篆文到關卽時印出上送俾無遲延之弊向事.”



도 10-1. 현릉 신도비의 篆額 부분. (左)舊碑, (右)新碑



도 10-2. 황산대침비(북원) 전액부분.(사진 필자 편집)

둘째, 용들이 여의주를 쥐는 자세가 변하였다(도 11). 舊碑의 경우 용들이 머리를 지면을 향한 채 앞발은 碑身의 윗부분을 전 채 뒷발로 여의주를 잡은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후 15세기 무렵 용들이 서로 마주보게 바뀌면서, 여의주 또한 자연스럽게 앞발로 잡게 되었다. 이 표현은 후대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반면, 新碑의 용들은 여의주를 뒷발로 잡고 있다. 이는 뒷발로 잡고 있던 舊碑의 양식을 의식한 결과였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용의 형태는 17세기 양식을 따랐기 때문에 현릉 신도비만의 독특한 표현이 등장하였다. 여의주의 위치를 높게 설정하고, 뒷발을 길게 뻗은 자세로 여의주를 쥐게 한 것이다.

정리하면 1695년 조성 당시 이수의 전체적인 형상은 17세기의 것을 따르되, 세부 표현은 舊碑를 의식하여 만든 것이다. 舊碑를 똑같이 베끼지 않은 이유는 제작자가 익숙한 것을 따른 결과로 보인다. 당시로서는 舊碑의 이수 양식은 오랫동안 제작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제작 당시



도 11. 현릉 신도비의 여의주 부분. (左)舊碑, (右)新碑



도 12. 태종 현릉 신도비의 귀부. (左)舊碑, (右)新碑

변화된 형상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풀어내고자 하였음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점은 ‘龍頭匠’으로 따로 불렸던 박기를 비롯한 장인들의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2. 龜趺

귀부는 문자 그대로 거북 형상을 한 비석 받침이다. 조선시대에는 왕실과 고위 관직을 지낸 이들을 중심으로 제작되었다. 현릉의 두 비석도 귀부를 갖추었고, 이수와 마찬가지로 시대에 따른 양식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도 12).

舊碑는 병란을 거치며 훼손되어 원형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귀갑문과 목의 흔적을 통해 귀부였음을 알 수 있다. 新碑는 거북이의 형상에 머리는 용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碑座부분은 연잎을 엮은 듯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新碑의 요소는 조선 후기에 들어 제작되어진 양식이다. 이 차이점을 아래의 비교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다.

먼저 舊碑의 귀부를 보면, 육각으로 구획된 龜甲文 내부에 ‘王’字를 새겼다(도 13-左).⁸⁵ 또한 碑座는 方形으로 몸체 중앙에 살짝 솟아있게 제작하였다. 비록 훼손되어 원형을 알 수는 없지만, 남아있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舊碑는 고려시대 탑비 양식을 계승하여 제작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원각사비>(1471년 건립)를 기준으로 귀부의 양식도 변화였다(도 13-中). 귀갑문은 실제 거북이의 나이테와 흡사하게 선으로 표현하였다. 비좌는 방형대좌에서 연잎을 뒤집은 형상으로 변화였다. 이와 같은 표현은 15세기 이후 제작된 대부분의 귀부에서 확인되어 조선시대 고유의 귀부양식이라 할 수 있다. 新碑 역시 이 양식을 충실히 따랐음을 알 수 있다(도 13-右).

85 이같이 귀갑문 안에 문자 혹은 문양을 새긴 것은 <법천사 지광국사현묘탑비>(1086)와 같은 고려시대 탑비에서 비롯되어, <회암사 선각왕사탑비>(1377)에서도 확인된다.

	헌릉 신도비(舊碑), 1424년	원각사비, 1471년	헌릉 신도비(新碑), 1695년
碑座			
문양			

도 13. 조선시대 귀부의 양식 변화 - 碑座와 文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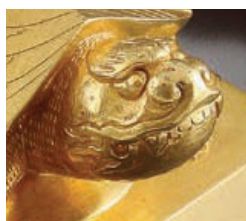
17세기는 조선 전 시기를 통틀어 가장 많은 귀부 비석이 제작되었던 시기였다. 그만큼 다양한 변화가 모색되던 시기이기도 하였다. 양식적으로 귀부의 몸체 표현은 전과 동일하였으나, 머리표현은 변화가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시기였다.⁸⁶ 따라서 이 머리의 변화를 중심으로 양식을 살펴볼 것이다.

숙종 대 귀부 머리표현은 크게 두 양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御寶의 龜紐 양식을 따른 것과,⁸⁷ 다른 하나는 龍頭를 표현한 것이다. 본문에서는 이를 편의상 각각 I, II 양식으로 분류하였다.

머리표현의 I 양식은 숙종 대 제작된 어보와 유사성을 갖는다(도 14-1). 눈은 동그랗고 시선은 위로 향하였으며, 파도같이 눈썹을 표현하였다. 입술 위로 날카로운 송곳니와 이빨을 드러내고 입꼬리 뒤로 화염 같은 표현을 새겼다. 다소 사나워 보이는 인상과 달리 코는 크고 과장되게 두었다. 코에서는 瑞氣로 보이는 하나 혹은 몇 줄기의 선을 새겼는데 입꼬리 뒤에 새겨진 화염과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턱 밑에는 수염을 형식적으로 새겨 두었다.



인경왕후 금보, 1681년



장렬왕후 금보, 1688년



장형 신도비, 1691년



인조별서유기비, 1695년

도 14-1. 숙종 대 제작 어보의 머리 표현⁸⁸

도 14-2. 숙종 대 귀부의 머리 표현 (I 양식)

86 귀부의 자세한 변화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 김규훈, 앞의 논문(2015), pp. 70-155.

87 조선시대 어보의 양식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 제지현, 「朝鮮時代 17-18世紀 王室 御寶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 논문(2013), pp. 58-66.

88 사진은 다음의 책에서 인용함. 국립고궁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도록 제3책 어보御寶』 제1권, (서울: 국립고궁박물관, 2010) 각각 p. 183, p. 201.

이와 같은 표현은 조선 시대 용의 도상과 부분적으로 흡사하나, 전체적인 형상과 무엇보다 뿔의 표현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용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어보와의 유사성을 보았을 때 왕실 미술의 양식이 공유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머리표현의 II 양식은 龍頭를 표현한 것이다(도 15). 이 양식은 본래 9세기 무렵부터 제작된 탑비에서 시작하여 고려 시대까지 지속해서 제작된 것이었다. 다만 조선 초에는 나타나지 않다가, 인평대군 신도비(1659년 건립)를 비롯하여 17세기에 제작된 일부 사대부 집안의 신도비에서 확인된다.

I 양식이 용의 도상을 부분적으로 표현한 것과는 달리, II 양식은 완전한 龍頭를 갖추고 있다.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용을 상징하는 뿔이 새겨진 점으로, 뿔 뒤로 수염이 넘겨지는 표현 또한 당시 용의 도상과 일치하는 것이다. 여기에 新碑에서는 다른 장식적인 표현을 줄이면서 번잡한 느낌을 피하였다. 이는 제작 당시에 이르러 용두를 조각하는 경향이 늘어나면서 용의 양식이 정리된 결과였을 것이다.

新碑가 중요한 이유는 왕실에서 제작한 비석에 처음으로 용두를 적용한 것이었다. 이렇게 용두를 취한 사례는 같은 시기 제작된 비석을 비롯하여 어보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숙종어보>(1713년), <소령원 신도비>(1718년 건립)와 같이 이후 시기 작품에 영향을 주었다⁸⁹(도 15). 또한 新碑의 이수 양식은 이후 제작되는 비석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점과 비교해보았을 때도 대조적인 것이다. 이러한 차이점은 당시 사람들의 취향에 따라 선택된 것으로 생각된다.

	현릉 신도비(新碑), 1695년	신경진 신도비, 1683년	소령원 신도비, 1718년
頭部			
세부 (뿔)			

도 15. 숙종 대 귀부의 머리 표현 (II 양식)

89 현릉 신도비가 龍頭形 귀부를 적용하게 된 계기는 정치적인 배경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숙종 때에는 왕실과 관련된 지역에 비석을 세우는 사업이 많았는데 당시 숙종의 위상을 강조하기 위하여 용의 형상을 취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김규훈, 앞의 논문(2015), pp. 140-143; 제지현, 앞의 논문(2013), pp. 81-83.

V. 맺음말

현릉 신도비는 건립과 훼손, 그리고 중건이라는 과정을 거쳐 현재까지 전하고 있는 비석이다. 무엇보다 왕릉에 훼손된 비석을 없애지 않고 그 옆에 새롭게 세운 사례는 유일하다. 그리고 중건의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한 『현릉비석의궤』는 현릉 신도비의 중요성을 더한다.

먼저 의궤와 원문자료를 중심으로 현릉 신도비의 재건과정을 살펴보았다. 두 차례 전쟁으로 왕릉은 훼손되었고, 조선 후기 국왕들은 이를 복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이러한 점은 금기와 같았던 왕릉에, 다시 비석을 세울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대신들의 동의가 있어야 했기 때문에 일은 1694년에 이르러서야 진행될 수 있었다.

현릉 신도비와 관련된 일의 진행과정은 『현릉비석의궤』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 기록을 통해 동시대 다른 기록과 달리 다양한 石材의 산지를 확인하였고, 각각의 특징까지 파악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작업에 참여한 장인들은 대부분 다른 國役에 종사하였던 이들이었고, 석수 뿐 아니라 건축, 족자 등과 관련된 이들로 구성되었다. 개개인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운송에 참여한 수천의 인력들도 본 役事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었다. 하나의 신도비를 세우는 것은 상당한 예산과 인력이 소비된 큰 규모의 일이었다.

두 신도비는 각각 조선 초기와 후기의 양식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작품이다. 이수의 경우 舊碑는 중국 비석의 양식을 따랐다. 반면 新碑는 17세기 제작되어온 양식을 바탕으로 舊碑에서 확인되는 古式을 일부 적용하여 현릉 신도비만의 고유한 작품성을 지니고 있다. 귀부는 17세기 들어 서서히 제작되기 시작한 龍頭형상이 적용되었다. 그리고 이 양식은 동시기 작품보다는, 후대에 작품들에 다수 확인된다. 이는 독창적인 양식을 취한 이수와 비교되는 부분이며, 당시 사람들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투고일 2018. 9. 17. | 심사개시일 2018. 11. 2. | 게재 확정일 2018. 11. 26.

* 본문에 실린 현릉 관련 사진은 간송미술관 김민규 선생님께서 촬영 및 제공해주셨다. 깊은 감사의 뜻을 올린다.

『大報檀謄錄』

『備邊司謄錄』

『承政院日記』

『弘齋全書』

『御製守城綸音』

『燃藜室記述』

『靑莊館全書』

『世宗實錄』

『世宗實錄地理志』

『仁祖實錄』

『肅宗實錄』

『英祖實錄』

『獻陵碑石重建廳儀軌』

『神懿王后齊陵神道碑營建廳儀軌』

국립고궁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도록 제3책 어보御寶』 제1권, 서울: 국립고궁박물관, 2010.

국립문화재연구소, 『조선왕릉 종합학술조사보고서 Ⅰ』,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조선왕릉 석물 조각사 Ⅱ』,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문화재연구실, 2016-2017.

국립중앙박물관, 『유리원판목록집』Ⅰ,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1997.

대한지질학회, 『한국의 지질』, 시그마프레스, 1999.

김규훈, 『朝鮮時代 神道碑의 龜趺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김민규, 『朝鮮 王陵 長明燈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原州 碑頭里 龜趺와 螭首 研究』, 『불교미술사학』15, 불교미술사학회, 2013.

김은선, 『朝鮮時代 王陵 石人像 研究』, 동국대학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7.

김이순, 『세종대왕 '구 영릉(舊 英陵)' 석물 연구』, 『정신문화연구』32,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신해순, 『17세기 전후 동반 소속 하급 경야전 제도의 변화: 서리(書吏)를 중심으로』, 『한국사학보』40, 고려사학회, 2010.

이명성 외 5명, 『비파괴 기법을 이용한 태종 헌릉 신도비의 표면 훼손도 진단』, 『文化財』46,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이준오 외 4명, 『국내 석재산지의 지역별 분포유형과 특성』, 『암석학회지』15권 3호, 한국암석학회, 2006.

이인숙, 『조선 16세기 신도비 비액 전서 연구』, 『민족문화논총』49,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1.

정선증, 『고려말 석비의 변화에 대하여양식과 재료를 중심으로』, 『문화사학』11·12·13號, 한국문화사학, 1999.

제지현, 『朝鮮時代 17-18世紀 王室 御寶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2013.

Study on the Reconstruction of the Memorial Stele in King Taejong's Heolleung Royal Tomb in 1695

KIM Gyuhun *

Located to the south of Daemosan Mountain in Seoul, Heolleung Royal Tomb comprises twin mounds constructed for King Taejong (太宗, r. 1400~1418), the third king of the Joseon Dynasty, and his wife Queen Consort Wongyeong (元敬王后, 1365~1420) of the Min family. Heolleung Royal Tomb and Geonwolleung Royal Tomb, the tomb of King Taejo(太祖, r. 1392~1408)' and the founder of the Joseon Dynasty, are the only tombs featuring a shed (bigak) for the memorial stele. Inside the shed in Heolleung stand side by side a stele erected in the fifteenth century and another reconstructed in the seventeenth century. What is also noteworthy is that there remains the Royal Protocol Recording the Construction of Stone Monument in Heolleung Royal Tomb (獻陵碑石重建廳儀軌, Heolleung biseok junggeoncheong uigwe), compiled during the reign of King Sukjong, which provides various records related to the restoration of the Heolleung memorial stele.

The Royal Protocol details the rebuilding process of the memorial stele in Heolleung, which begins with the quarrying of the stones, including from Ganghwa, Chungju, and Gang-eum. Stone from Ganghwa is a nearly achromatic granite. Due to their solidity and sturdiness, they were used to make stone structures for tombs of the Joseon royal family and scholar-officials. In the end, however, soft stone from Gang-eum was chosen according to the fifteenth-century stele tradition for erecting a high-quality memorial stele. The master artisans recruited to create the memorial stele had also been engaged in other national construction efforts. Among them were stonemasons, blacksmiths, and sculptors. The Royal Protocol categorized some stonemasons as the artisans for dragon heads, which indicates that there were stonemasons responsible for making the dragon-shaped capstone of the stele. Moreover, engraver engraved characters on the black stele and dusted it with flour to ensure that the characters stood out. Many other artisans participated in this

* Curatorial Assistant, National Museum of Korea (Fine Arts Division)

rebuilding process. For example, there were carpenters and roof tilers to build the shed for steles; scroll makers and metalworkers printed the stele inscription and mounted it on a scroll as an offering to the king; and over a thousand soldiers were tasked with transporting the stele. The reconstruction of Heolleung memorial stele clearly required considerable human resources and a massive budget.

The two memorial steles standing side by side respectively reflect the stele styles of the early and late Joseon periods. Overall, the fifteenth-century stele is in the manner of the Chinese-influenced steles often erected at the end of the Goryeo Dynasty. However, the tortoise-shaped bases reflect traditional Goryeo steles. The seventeenth-century stele is built in a rather distinctive and contrasting manner. For example, its dragon-shaped capstone largely follows the seventeenth-century manner but partially applies styles from the fifteenth century that were no longer common by its day. Accordingly, among the surviving late Joseon steles, such an ornamental capstone engraved with an inscription in seal script can be seen only in the Heolleung memorial stele of 1695. Based on the tortoise-shaped base established in the fifteenth century, a dragon head in the style that began to be produced in the late seventeenth century was added. Influenced by this example, other tortoise-shaped bases for later steles were provided a dragon head. Furthermore, the rebuilding project for Heolleung memorial stele broke the taboo of erecting steles at Joseon royal tombs and justified the construction of stone markers at royal tombs during the reign of King Yeongjo. Thus, the reconstruction of the memorial stele in Heolleung in 1695 was a stylistically and politically significant event.

Keywords: Heolleung Royal Tomb, Memorial Stele, Royal Protocol Recording the Construction of Stone Monument in Heolleung Royal Tomb, Reconstruction, Tortoise-shaped Base, Ornamental Capstone, Master Artisan